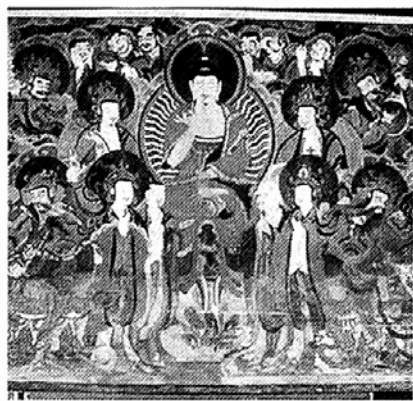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도난 문화재를 찾읍시다** 경찰청 후원



◇12일 새벽 도난당한경남 함양벽축사 목조삼존불상(사진 좌)과 후불탱화.



국민 모두가 문화재 지킴이로

사회적 관심 높이자

그 동안 비지정문화재 도난범들의 집중 표적이 됐던 사찰소장 비지정문화재 도난 사건이 최근 3년 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비지정문화재 도난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함께 줄어들고 있다.

이 같은 감소 현상은 불교계와 정부에서 추진해온 비지정문화재 도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찰소장 비지정문화재 보존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면서 생긴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올 8월까지 발생한 사찰소장 비지정문화재 도난 사건은 모두 25건(48점)이 발생했다(문화재청 공식 접수 건수).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9년 13건(22점)의 도난 사건이 사찰소장 비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일어났으나, 지난해 9건(22점)에 이어 올 들어 3건(4점)으로 점차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문화재청에 접수된 전체 비지정문화재 도난 사건 역시 1999년 25건(118점)에서 2000년 22건(827점), 2001년 12건(235점)으로 줄어들었다.

전체 도난 건수에서 사찰소장 비지정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에는 전체 도난 건수의 과반수(52%)를 넘어섰던 것이 2000년 41%, 2001년에는 25%만이 사찰에서 발생했다. 이는 사찰소장 비지정문화재 도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불교계와 문화재청은 그 동안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지정문화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2001.3.28) △경찰청 문화재 지킴이 발족(2001.7) △사찰문화재 일제조사 실시(2002년 5억 예산 배정) △사찰유물전시관 건립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도 △문화재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기산점 변경을 통한 실질적인 공소 시효 연장으로 문화재 절취 등 유인요소 제거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 △문화재청 사범단속인력 강화 △검찰과 경찰에 전담 수사기관 설치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 오고 있다. 종단 자체로도 올 5월 총무원장 정대 스님이 직접 '사찰문화재 보존과 도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방범·방화에 관한 령'을 마련하고, 종단 신자 사찰에 대해 2002년까지 방범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방범은 금물이다. 비지정문화재 도난에 대한 위험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하인사 말사인 벽축사 후불탱화 도난 사건과 해남 미황사 동자상 도난 사건에서 보듯 사찰소장 비지정문화재 도난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일선에서 문화재사범 수사를 맡고 있는 한 관계자는 "문화재사범은 사회 분위기에 민감하다"며 "사회적 관심과 여론이 높아지면 문화재사범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잠잠해 지면 다시 고개를 드는 게 문화재사범이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비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는 말이다.

때문에 "관심"을 넘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문화재보호법 개정 추진이나 경찰청 문화재 지킴이 출범 등 비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한 노력을 통해 사찰소장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과제는 도출된 보호 방안을 빈틈없이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jrnny@buddhapia.com

조선초 나한상 2백점 또 출토

5월 1백여점 나온 영월서... 나한전 건물터도

충북 단양군과 경계를 이루는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 2리. 속칭, 초로봉 기슭 밭에서 조선 전기 양식의 석재 나한상 300여 점이 한꺼번에 출토됐다. 이들 나한상은 오백 나한상의 일부로 보이며 이를 봉안한 나한전으로 추정되는 건물터도 함께 발견됐다.

강원도문화재연구소(소장 방재홍)는 지난 5월 초 경지정리 과정에서 나한상 100여 점이 출토된 이 지역에 대한 긴급 발굴조사를 벌인 결과 오백 나한상의 일부로 추정되는 200여 점의 나한상을 추가로 발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나한전으로 짐작되는 건물터도 함께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나한상 가운데 완전한 형태는 10여 점에 불과하지만 국내에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조선 전기 석조 나한상이라는 점과 조선 중기 때 추가로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나한상도 섞여 있어 나한

상의 양식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출토된 나한상은 대부분 화강암으로 제작됐으며 상당수가 심하게 부식되거나 파손돼 있다. 높이 30cm 여격 폭 20cm 안팎의 소형 상으로 4-5점을 제외하곤 전부 좌상이다. 함께 출토된, 등을 맞대고 붙어 있는 소형 석불좌상의 몸체와 흠으로 빛은 소조불상의 불두 역시 조선 전기 양식으로 추정된다.

조선 초기 분청사기와 백자, 고려시대 어골문과 연판문 등의 흔적이 변형된 조선 초기 기와 등도 다량으로 출토됐다.

강원문화재연구소는 나한상이 집중 출토된 지역의 북쪽에서 확인된 전면 3칸, 측면 2칸(약 9평) 규모의 건물터는 불에 탄 마루 시설 위에서 나한상 20여 점이 출토된 점으로 미뤄 오백 나한을 봉안했던 나한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원 영월서 다량 출토된 조선전기 석조나한상.

함께 출토된 자기와 기와의 대부분은 16세기에 제작된 것이지만 15세기와 17세기 양식도 일부 보인다. 권형진 기자

미륵사지 석탑 31일 해체보수

2007년까지 80억 예산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인 전북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이 31일부터 보수정비를 위한 전면 해체에 들어간다.

2007년까지 모두 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될 해체 보수정비의 1차 과제는 남아 있는 부재의 정확한 상태 진단이다. 부재 해체와 함께 과학적 보존처리와 부재 보강, 실측 작업을 동시에 하게 된다. 그동안 만이 됐던 복원 문제는 부재의 상태 확인이 끝난 후 전문가들의 자문 및 고증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보수정비를 맡은 국립문화재연구소 김봉천 미술공예실장은 "민약 조사 결과 부재 손상이 심하다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보존방법"이라며 "복원을 포함한 보수정비의 범위는 해체 후 석탑 부재의 상태 여부에 따라 다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제 무왕(600~641년) 때 건립된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양식상 변화를 엿볼 수 있는 탑으로, 1915년 일본인들이 무너진 뒤쪽을 시멘트로 보강하여 반쪽탑의 형태로 남아 있다. 현재는 6층까지 남아 있으나 정확한 층수는 알 수 없다.

권형진 기자

* 기사 넘쳐 '고승 다시 보기' 쉽다.



◇대구 팔공산 동화사 창건 1508주기 기념 학술대회가 20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열렸다.

'금당선원 중심으로 선찰 자리매김'

'동화사 역사와...' 학술대회

절을 창건한 지 올해로 1508년이 되는 대구 동화사 개산 기념 학술대회가 '팔공산 동화사의 역사와 사상'을 주제로 20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열렸다. 동화사(주지 성덕)와 범종불자교수회(회장 배동호) 주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동화사의 역사와 가풍, 인물과 사상, 가람의 특징을 통해 동화사의 '원류'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김상현 교수(동국대)는 동화사의 기틀을 마련했던 심지 스님의 <점찰경> 신앙을 중심으로 동화사의 사상적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동화사사적비>에 따르면 신라 소지왕 15년(493) 극달 화상이 절을 창건했다고 전하며 동화사는 9세기 전반 심지에 의해 창건됐을 가능성이 많다"며 "실사 심지는 중창자였다고 하더라도 이 절의 기틀은 심지에 의해 확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심지의 실질적 창건이래 고려말까지는 <

점찰경>에 따른 점찰법회와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법상종의 가풍과 풍지가 곧 동화사의 종지였다"고 밝혔다.

'팔공산 동화사의 인물 및 사상'을 발표한 홍선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동화사는 그 유구한 역사 속에서 불교의 다양한 종파가 종의 본산으로 삼았지만 근세의 흐름은 금당선원을 중심으로 한 선(禪)적 흐름이 돋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선 스님은 "동화사는 근세에 들어와 석우, 효봉, 성철 스님 등 위대한 선승들이 결사한 장소"라며 "이러한 인적 흐름은 동화사가 금당을 중심으로 선찰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 주며, 오늘날 조계종의 기초선원이 동화사에 자리잡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 이어 21일부터 28일까지 동화사를 빛낸 역대 조사 진영전과 차문화 축제, 사경대회, 사찰음식 시연회 등의 개산 기념 행사가 이어졌다. 권형진 기자

연꽃불자시계

◆ 특별사은품 (달마시계 + 수암옥 108점주)

◆ 남성용, 여성용 각각 119,000원

불자용 방석

◆ 재질: 면

◆ 크기: 약 50cm x 50cm

◆ 가격: 20,000원

겹다포

◆ 재질: 면

◆ 색상: 황토색 (크기: 41cm x 68cm)

◆ 밤 색 (크기: 43cm x 58cm)

◆ 회 색 (크기: 38.5cm x 58cm)

◆ 가격: 각 6,000원

한방속옷 세트

◆ 여성용

- 소재: 면 100% (60수)
- 사이즈: FREE · 구성: 숄, 황토, 속
- 3종(숄, 황토, 속) 세트: 19,000원

◆ 남성용

- 소재: 면 100% · 사이즈: 95, 100, 105
- 특징: 건강을 위하여 회음부분에 옥가루 부착
- 5종(숄, 황토, 속, 도토리, 오배자) 세트: 45,000원
- 3종(숄, 황토, 속) 세트: 29,000원

옥(玉) 건강벨트

◆ 내용물: 건강벨트, 온도조절기, 어댑터, 시가잭, 충전기 / 배터리 (휴대용 구입시)

◆ 가격: 가정용 148,000원, 휴대용 248,000원

우리말 표범연화경

1. 서품 ~ 27. 보현보살권발품까지 총 27장의 CD를 패키지상품으로 구성하여 15%(270,000원-229,500원=40,500원) 할인된 가격으로 드립니다.

◆ 정상가: 270,000원 ◆ 할인가: 229,500원

자개모자佛자

◆ 크기: 가로 235mm x 세로 560mm x 높이 25mm

◆ 색상: 적색, 흑색

◆ 가격: 660,000원

◆ 중요 무형문화재 제10호 기능 보유자이신 洪漢 未芳雄 (정계 승방) 선생이 직접 기로 제작한 것입니다. 제품의 재질은 최고급 중순에 5번에 걸쳐 나전실용 한 후 최고급 자개로써 글자를 새긴 것입니다. 특히 자개는 빛의 강도와 보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여 낮과 밤에 따라 그 빛이 달리 보이는 묘미가 있습니다.